



Dept. of AI Computer Eng.
Far East University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융합 인재 양성

극동대학교 AI컴퓨터공학과

Table of Contents

1. 학과 소개

학과 연혁	4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5
전공 특성화 프로그램	6
글로벌 특성화 프로그램	11
연구 성과	18
자격증 및 취업	22
교육과정	24
교육프로그램	25

2. 학과 활동 및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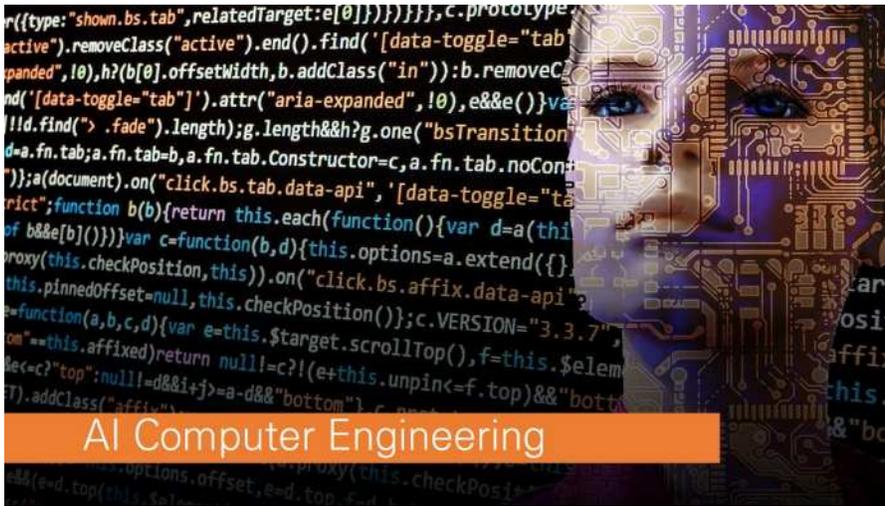
학보기사	26
AI컴퓨터공학과 최신 소식	48

3. 학생 에세이

학생 에세이 : 해외봉사활동	57
학생 에세이 : 교환학생	61
학생 에세이 : 필리핀 단기연수	63
학생 에세이 : GLDP 소감문	65
학생 에세이 : 졸업생 인터뷰	67

4. 교수 소개

교수 소개	73
-------	----



AI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AI Computer Engineering

극동대학교 AI컴퓨터공학과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실무 능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AI 융합 인재를 양성합니다.

AI컴퓨터공학과는 SW의 글로벌 표준 교육과정과 AI 핵심 기술과 연관된 영상 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특히 위성센서영상 컴퓨터비전/영상처리 분야의 국내 정상급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인공지능, 영상처리,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처리 등의 첨단 IT 기술 관련 국내외 산업체와 IT 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기업, 멀티미디어를 포함하여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의 다양한 산업체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극동대학교 AI 컴퓨터공학과에서 만들어 가십시오.

학과 연혁

- 1998년 : 학과 설립
- 2002년 : IT관련학과 우수대학 선정(정보통신부)
- 2004년 : 지역혁신 특성화 프로젝트 선정(산업자원부)
- 2005년 : 컴퓨터정보표준 특성화 시범대학 선정(국내최초)
- 2005~2006년 : 아리랑 위성자료 공공활용 연구과제 선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2007년 : 국가 이공계 대학원 우수장학생 선발
- 2007년 : 대한원격탐사학회 학생 우수논문상 수상
- 2008년 : 다목적실용위성3호 시스템종합 개발 사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2011년 :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교환학생 파견(1명)
- 2011년 : 제1회 필리핀국립대학(UPLB)과의 국제워크샵 개최
- 2012년 : 미국 TWC Internship 프로그램 참가 학생 선발 (본교 최초)
- 2014-2015년 : 위성정보공공활용사업 연구 수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2014년 : 충북중소기업청장 표창장 수상(남의석 교수)
- 2015년 : 필리핀 자매대학 FEU Tech과 MOA 체결
- 2015년 :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포상자 선정(김성중교수)
- 2015년 : 대한원격탐사학회 우수논문상 수상(예철수 교수)

- 2016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 국제우주교육 초청 강연(예철수 교수)
- 2016년 : 한국 과총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예철수 교수)
- 2017년 : 제7회 필리핀 자매대학(FEU TECH)과의 국제워크샵 개최
- 2017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 국제우주교육 초청 강연(예철수 교수)
- 2017년 :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와 중국과학원(CAS) 공동 주최 AASSA-CAS Joint Workshop 초청 강연 (예철수 교수)
- 2017년 :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와 중국과학원(CAS) 공동 주최 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 초청 강연 (예철수 교수)
- 2018년 : Caraga State University와 국제 공동 연구 수행(예철수 교수)
- 2018년 : International Conference in Technology 총회 강연(예철수 교수)
- 2018년 : 제8회 필리핀 FEU TECH 대학과의 국제워크샵 개최
- 2018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 국제우주교육 초청 강연(예철수 교수)
- 2019년 : 제9회 필리핀 자매대학(FEU TECH)과의 국제워크샵 개최
- 2019년 : 다목적실용위성7호 연구 수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2019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 국제우주교육 초청 강연(예철수 교수)
- 2021년 : 항공IT융합학과에서 AI컴퓨터공학과로 학과 명칭 변경 승인(5월)

해외 대학과의 교류

유타주립대학교, 미주리주립대학교 등 해외 명문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취업뿐 아니라 해외 대학원진학 및 글로벌 기업 취업 능력 향상 특성화 과정 운영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교육 목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실무 능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AI 융합 인재 양성

교육 과정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응용 중심의 글로벌 표준 교육과정으로 구성됨.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교과목인 디지털영상처리, 컴퓨터비전, 머신러닝, 딥러닝, 빅데이터컴퓨팅 등의 교과목과 C/C++, 파이썬, JAVA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교육 과정 운영

AI와 소프트웨어-영상 융합 교육과정 운영

SW의 글로벌 표준 교육과정 (ACM/IEEE 교육과정 구성) 중심의 SW 교육과정 구성

AI 핵심 기술과 연관된 영상 기술 분야 교과목의 체계적 구성

컴퓨터비전/영상처리 분야 국내 정상급 연구 성과 보유

01

AI 기술

인공지능개론, 머신러닝, 인공지능경망, 빅데이터컴퓨팅
딥러닝, 인공지능 프로젝트

02

영상 기술

원격탐사, 디지털영상처리, 컴퓨터비전, 컴퓨터그래픽스

03

SW 기술

파이썬, C/C++, JAVA, 리눅스/윈도우 프로그래밍

전공 특성화 프로그램

Program 1 : 학과 오픈 연구실 운영

학과 연구실이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학생들이 연구와 세미나를 수행하며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 국가 이공계 대학원 우수장학생 선정
- 대한원격탐사학회 우수학생논문상 수상
- TOPCIT 정기평가 특별상 수상
- KT 창의혁신장학금 장학생 선정
- KT IT 마스터 장학생 선정
- 테크플러스(tech+) 장학생 선정
- 산업보안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 GREEN 코엑스 홍대대사 최우수상 수상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수행
- IT멘토링 프로젝트 수행
- 한국우편사업진흥원(POSA) IT육성장학생 선정



POSA IT 육성장학생

한국우편사업진흥원(POSA)에서 지원하는 2018년 IT육성장학생에 우리학과 2학년 이강산 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신청한 IT육성장학생 선발 사업은 전공 관련 학업의지 계획서, 전공관련 활동 및 봉사활동, 추천서 등을 평가하여 전국의 대학 및 전문대학 당 2명의 추천 학생을 대상으로 최종 100명이 선발된 사업으로 선발된 IT육성장학생은 장학금(학기 당 100만원)을 졸업 시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강산 학생은 2학년 전공 과정으로 이미 원격탐사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영상처리, 컴퓨터비전, 패턴인식, 컴퓨터그래픽스의 전공 심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이수하게 되며 졸업 후 관련 분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공 특성화 프로그램

Program 2 : 전공/영어 몰입 스터디 과정 운영

학생들의 전공 교육 강화를 위해 학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몰입 스터디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몰입 스터디 과정은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적성을 찾고 진로 및 취업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매 학기 다양한 세부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공 소모임 과정	지도교수
ABI(AI, Big Data & IoT)	김성종
AI 아카데미	남의석
AI-Embedded 실험 교실	신예호
AI Computer Vision Academy	예철수
전자회로설계 소모임	이덕진
취업역량강화 Java/C 소모임	현득창



영어몰입 스터디 과정

우리 대학과 교류협력 관계가 있는 해외 대학에서 온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두 대학 학생들 간의 문화 및 언어 교류를 촉진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과 제체적으로 영어 몰입 스터디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해외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전공 특성화 프로그램

Program 3 : 해외 대학과의 교류 협력 MOU 체결 및 교류

유타주립대학교, 미주리주립대학교 등 해외 명문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취업뿐 아니라 해외 대학 원진학 및 글로벌 기업 취업 능력 향상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EU TECH 대학과의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2011년)하고 이후 두 학과 간의 다양한 교류 협력 프로그램(국제 워크숍 및 전공 팀티칭)을 운영 중임. 대학간 MOA 체결(2015년) 및 학과 간 교수 및 학생 교환, 공동 연구 등에 대한 교류 협력을 확대 추진 중입니다



FEU TECH 공동연구

2015년에 FEU TECH 대학과의 교류 협력 MOA 체결 이후 공동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2018년에 두 건의 국제학술대회에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발표된 두 편의 논문은 2018년 5월 9일~11일 사이에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인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2018 (ISRS 2018) 과 2018년 6월 28일~30일 사이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8th International Workshop o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WCSE 2018)에서 각각 발표되었습니다



전공 특성화 프로그램

Program 4 : 유비쿼터스기술 국제 워크샵 (InUbit) 개최

2011년부터 IT분야 국제 워크샵 International Workshop on Ubiquitous Technology를 학과에서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학생들 대상의 강연 및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rogram 5 : IT 분야 외국인 교수 초청 전공 팀티칭

학생들의 전공 분야의 잠재적인 글로벌 역량 향상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전공 분야 외국인 교수를 초청한 팀티칭 프로그램을 다음 주제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InUbit2011 국제워크샵

2011년에 개최된 첫 번째 InUbit 국제워크샵은 필리핀 국립대학교 UPLB 컴퓨터사이언스 학과와 공동으로 개최었습니다. 필리핀 국립대학교 UPLB에서는 컴퓨터사이언스 학과장 Vladimir Y. Mariano 교수를 비롯하여 Joseph Anthony C. Hermocilla 교수가 참석하여 연구 결과 발표 및 학생들 대상의 튜토리얼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공 특성화 프로그램

Program 6 : 국제 연구 프로젝트 진행 1 (FEU TECH 대학)

자매 대학인 FEU TECH 대학과 2015년부터 공동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Program 7 : 국제 연구 프로젝트 진행 2 (CSU 대학)

필리핀 과학교육부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Caraga State University 대학의 교수를 본교 방문 연구 교수로 임용하여 AI컴퓨터공학과와 영상비전시스템연구실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CSU 대학 국제공동연구

AI컴퓨터공학과 예철수 교수의 영상 비전 시스템 연구실(Image and Vision System Lab.)에서 필리핀 Caraga State University의 Michelle V. Japitana 교수를 초청하고 극동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정식 채용하여 2018년 2월5일부터 7월 4일까지 극동대학교에 체류하며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Japitana 교수의 연구 및 체류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필리핀 과학교육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예철수 교수는 공동연구의 책임자로 함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영상을 이용한 수질 오염 모니터링 관련 기술 개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글로벌 특성화 프로그램

AI컴퓨터공학과는 글로벌 학생 가치의 실현을 위해 단계적인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봉사활동과 교환학생 및 산학 연계 해외 인턴십 협력 과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해외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봉사를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GL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용어인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소양과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교환학생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명문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교환학생 파견
해외인턴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워싱턴 TWC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글로벌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교환학생 및 유학생 참여 수업(학부/대학원) 과정 운영 ▪ 외국인 교환학생과의 교류 모임
글로벌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대학원진학 및 글로벌 기업 취업 능력 향상 특성화 과정 운영 ▪ 글로벌 프로그램 준비 학습실 운영

글로벌 특성화 프로그램

Program 1 : 해외 봉사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

AI컴퓨터공학과는 교수 및 학생들의 활발한 해외 봉사를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 캄보디아 해외봉사단장(남의석 교수) 파견(2009)
- 캄보디아 해외봉사단장(남의석 교수) 파견(2010)
- 캄보디아 해외봉사단장(남의석 교수) 파견(2011)
- 필리핀 해외봉사단장(예철수 교수) 파견(2011)
- 필리핀 해외봉사단장(예철수 교수) 파견(2012)
- 신입생 해외봉사단(필리핀 총괄: 예철수 교수) 파견(2012)
- 신입생 해외봉사단(태국 부라파대학 총괄: 남의석 교수) 파견(2012)
- 캄보디아 해외봉사단장(남의석 교수) 파견(2012)
- 해외봉사 글로벌 리더상 수상(안영만 학생, 2012)
- 해외봉사 글로벌 리더상 수상(최재형 학생, 2013)

필리핀 봉사 활동

필리핀 해외봉사는 필리핀 자매 대학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과 자매대학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노력봉사, 교육 봉사, 현지 문화 체험 등의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봉사활동 기간 중에 현지 자매 대학 학생들과의 협력을 통해 봉사 활동 이후에는 교환 학생으로 1~2학기 상대 대학에 학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로벌 특성화 프로그램

Program 2 : 글로벌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GLDP)

GLDP(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은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단기집중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제공용어인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소양과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극동대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AI컴퓨터공학과 학생은 GLDP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다음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Award for the Most Improved Student 수상(2012)
- Award for Honorable Mention 수상(2012)
- Best Student Award 1위, 3위 수상(2013)
- The Second Award 수상(2013)
- Most Improved Award 수상(2013)
- Best Student Award 수상(2015년)
- Second Place Award 수상(2016)
- Award for Most Improved 수상(2016)
- Award for Most Diligent/Hardworking 수상(2016)



GLDP 프로그램

다양한 외부 체험활동을 통한 실용영어의 구사 및 “Good Neighbor” Program의 일환으로 주한미군부대 방문 및 주한미군부대내의 미국학교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미국의 사고방식, 생활습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어프로그램입니다.

- FUN 중심으로 구성된 다양한 FIELD TRIP을 통해 실용영어 학습
- 강사 1인당 학생수를 10명 내외로 하여 소규모 반으로 운영
- 최고의 강사진들이 창의적 교육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
- 최신 기숙사와 전자교탁, wide screen AV 환경 등 유비쿼터스 환경의 첨단 교육환경 제공

글로벌 특성화 프로그램

Program 3 : 교환학생/유학생 프로그램

학생들의 국제화와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위해 영어권 자매 대학(미국 주립대학교, 필리핀국립대학교 등)에 교환학생을 적극적으로 파견하고 있고, 외국인 교환학생 및 유학생이 AI컴퓨터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을 듣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AI컴퓨터공학과 교환학생 해외 파견 대학(Outbound)
 - 유타주립대학교(USU, 미국)
 - 필리핀국립대학교(UPLB, 필리핀)
 - 필리핀극동대학교(FEU-Manila, 필리핀)
 - 부라파대학교(태국)
- 외국인 교환학생 AI컴퓨터공학과 등록 대학(Inbound)
 - 필리핀국립대학교(UPLB, 필리핀)
 - 필리핀극동대학교(FEU-Manila, 필리핀)
 -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 수라나리대학교(태국)
-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 AI컴퓨터공학과 등록 대학
 - 덕주대학교(중국)



글로벌 특성화 프로그램

Program 4 :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극동대학교는 미국 워싱턴 소재 정부기관, 관공서, 연구기관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턴십 프로그램인 TWC(The Washington Center for Internships and Seminars)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최초로 AI컴퓨터공학과 학생이 미국 TWC 인턴십 과정에 선발되어 워싱턴 소재 IT기업에서 근무와 수업을 함께 병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TWC 인턴십 프로그램

TWC(The Washington Center)는 비영리 단체로서 미국 워싱턴 지역 소재의 스폰서재단과 연계하여 미국의 정부기관, 관공서, 연구기관, NGO 등에서 인턴으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과 과정도 운영하여 사회인이 되기 전에 실무습득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TWC 인턴십 프로그램의 특징은 실무과정과 학과 과정을 둘 다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리더십포럼, 포트폴리오 작성과 같은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턴경험과 영어실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특성화 프로그램

Program 5 : 외국인 교환학생과의 교류 모임

극동대학교를 방문한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시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문화 및 언어 교류를 촉진하여 시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운영되는 학생 자체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특성화 프로그램

Program 6 : 글로벌 프로그램 준비 학습실 운영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을 제공하는 학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글로벌 프로그램(해외봉사, 영어몰입교육, TOEIC, GLDP, 교환학생, TWC)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공적인 성취를 할 수 있는 준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Program 7 : 글로벌 동기부여 특강 과정

학생들의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 동기 부여 특강 과정으로 글로벌 프로그램의 중요성 및 참여 동기 부여 및 지속적인 몰입 유도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하는 특강 과정입니다

- "Who we are now always have a choice that makes us who we will be!" (Francesca Jae Bae 교수)
- "What You Want, More than You Want" (김지현 교수)
- 나눔과 섬김의 씨앗 : 해외봉사를 통한 삶의 의미와 글로벌 리더쉽 (김동욱 교수)

글로벌특강 내용 중에서

By Francesca Jae Bae 교수

“우리는 오늘도 왜 열심히 살았나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아닌가요?

내일은 오늘보다 왜 나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매일 사는게 힘이 듭니다. 기쁨도, 의미도, 성취감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은’ 내일만을 위해 그럼 열심히 사나요? 아니죠, ‘멋진’ ‘더 나은’ 날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날마다 나아지고 더 멋진’우리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오늘의 특강 주제입니다.”



연구 성과

Program 1 : 연구 성과 국제 초청 강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최 International Space Education 초청 강연, Korea, 2019.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최 International Space Education 초청 강연, Korea, 2018.
-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in Technology plenary speaker 강연, Philippines, 2018
- FEU TECH 대학 초청 강연, Philippines, 2018.
-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와 중국과학원(CAS) 공동 주최 AASSA-CAS Joint Workshop 초청 강연, China, 2017.
-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와 중국과학원(CAS) 공동 주최 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 초청 강연, China, 2017.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최 International Space Education 초청 강연, Korea, 2017.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최 International Space Education 초청 강연, Korea, 2016.
- FEU TECH 대학 초청 강연, Philippines. 2016.
- FEU TECH 대학 초청 강연, Philippines. 2015.

AASSA-CAS 초청 강연

AI컴퓨터공학과 예철수 교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국제기구인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와 중국과학한림원(CAS)의 공동 초청 강연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부터 15일까지 중국에서 개최된 금번 국제 워크숍은 자연 재해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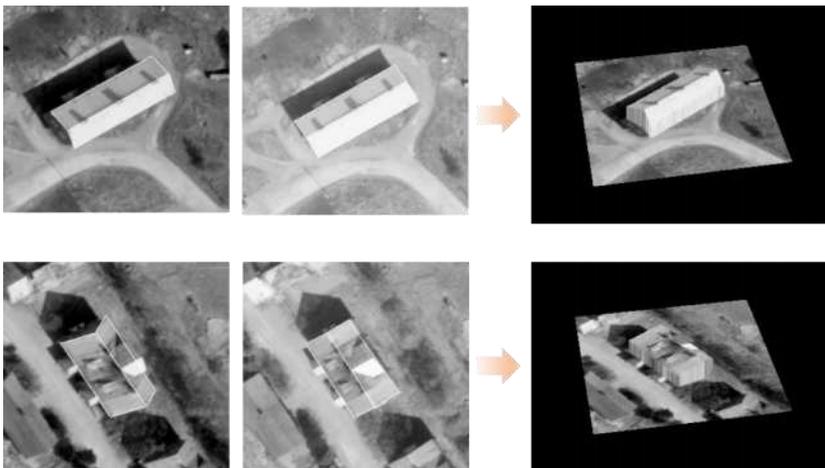
예철수 교수는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의 추천을 받고 국제한림원연합회(InterAcademy Partnership, IAP)의 후원으로 금번 국제 워크숍에 초청 받았습니다.



연구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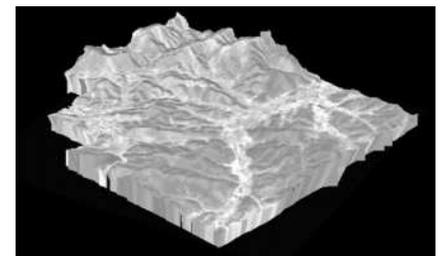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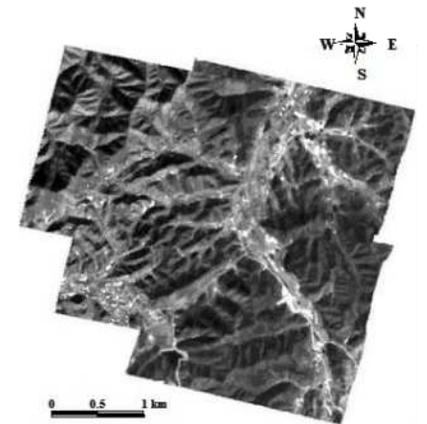
Program 2 : 항공·위성 영상처리 분야 정부 연구 과제 수행

- 아리랑위성 영상자료 객체기반 영상분석 기법 개발(한국항공우주연구원)
- 3차원 지상기준점 결정 알고리즘 개발(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고해상도 이중 센서 영상의 다중 특징 정보를 이용한 영상 등록 및 영상 분류 (한국연구재단)
- 다중센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홍수범람 지역 추출 및 피해지역 분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공간 정보 생성을 위한 이중 위성 센서 영상을 이용한 정합 기술 (한국연구재단)
- 도시지역 모니터링을 위한 시계열 위성 영상 분석 기술 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고해상도 다중센서 영상자료 융통합 처리기술 개발 (과학기술부)
- 지능적 영상처리를 이용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부터 건물의 3차원 복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다중 시기 스테레오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시지역 건물의 변화 탐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활용한 도심지역의 건물 검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3차원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항공영상의 정보 융합 (한국학술진흥재단)



위성영상처리 활용 기술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인공위성 영상에 적용하면 인공위성 영상에 있는 지상 좌표에 대한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원격 탐사의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Chul-Soo Ye and Kwae-Hi Lee, 3D building reconstruction using building model and segment measure function, *Journal of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37-SP(4), pp. 324-333, 2000

Chul-Soo Ye, Byung-Min Jeon, and Kwae-Hi Lee, Digital elevation model combination using triangular image warping interpolation and maximum likeli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 24, pp. 3683-3689, 2003

연구 성과

Program 3 : IT 분야 연구 과제 수행

-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스마트 폰 센서만을 이용한 실내위치 인식 기술 개발 (산학협동재단)
- 10% 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하수처리시스템 활성슬러지공정퍼지 제거기 개발 (중소기업청)
- 화재시 탈출로 안내를 위한 음성유도시스템 개발 (산학협동재단)
- 디지털도어락과 통신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User Interface 구현 ((주)파이온텍)
- IDC의 저전력 솔루션 Greenware기술 연구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태양광과 압전소자를 이용한 절전형 LED 발광 지방국도(논로) 교통사고 방지 및 과속방지턱 겸용 가로등 개발 (중소기업청)
- 모바일 CPU 플랫폼 기반 상황인지형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개발 (중소기업청)
- CnD(CreativeandDevelopment)형 디지털 사이니지 연구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011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 시작품 제작(휘어지는 멀티탭) ((사)대학 산업기술지원단)
- IT멘토링제도 - 팀 프로젝트 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컴퓨터 하드웨어 장애 인식 카드 개발 (산학협동재단)
- DMB용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의 Embedded Linux Porting 기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건물에너지 절감을 유무선센서기반 에너지 관리기술 연구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EmbeddedLINUX 포팅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청각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을 위한 한국형 큐드 스피치 비주얼 파닉스 의사 소통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도구 개발 (한국연구재단)
- 분수설계를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중소기업청)
- 실시간 음악분수 연출을 위한 초고속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청)
- 미소자계 검출을 통한 매입선로 추적장치 (중소기업청)
-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중소기업청)
- 영상 처리를 이용한 케이블 손상 검출장치 (중소기업청)
- 16X4 열화상 센서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기반 저가형 감시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청)

센서 활용 기술 개발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이 지원하는 2018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 AI컴퓨터공학과 남의석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5월 30일에 발표된 금번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서 남의석 교수는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스마트 폰 센서만을 이용한 실내위치인식 기술 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맡아서 (주)테크원시스템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연구 성과

Program 4 : 대외 수상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예철수 교수, 2016)
- 관련기사: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2866>
-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김성종 교수, 2015)
- 관련 기사: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887907>
- 대한원격탐사학회 우수논문상 (예철수 교수, 2015)
- 관련 기사: <http://news1.kr/articles/?2463323>
- 충북중소기업청장 표창장 수상(남의석 교수, 2014)
- 한국발명진흥회 청소년 미래상상기술경진대회 동상 (지도: 남의석 교수, 2012)
- 한국발명진흥회 청소년 미래상상기술경진대회 은상 (지도: 남의석 교수, 2011)
- 한국발명진흥회 청소년 미래상상기술경진대회 우수상 (지도: 남의석 교수, 2010)
- 한국발명진흥회 청소년 미래상상기술경진대회 우수상 (지도: 남의석 교수, 2009)
- 한국발명진흥회 청소년 미래상상기술경진대회 동상 (지도: 남의석 교수, 2009)
- 대한원격탐사학회 우수학생논문상 (지도: 예철수 교수, 2007)



한국과총 우수논문상

AI컴퓨터공학과 예철수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이 주관하는 제26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을 수상했습니다. 과총의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의 연구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과총 소속 학회에서 전년도에 발표된 우수논문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된 논문(학회당 1편)을 과총에서 종합 심사하여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논문상입니다

산자부장관 표창

AI컴퓨터공학과 김성종 교수가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기술보호 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가 후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널리 알리고 기술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기술 인재가 대우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박람회입니다

자격증 및 취업

01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영상처리, 컴퓨터비전, 패턴인식,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틱스, 자율주행 등의 AI 관련 다양한 분야

02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게임/인터넷 콘텐츠 개발 등

03

정보통신 분야

IT컨설팅, IT프로젝트관리, IT아키텍처, 네트워크/서버 관리 등 다양한 IT 분야

국내공인자격증

- 드론자격증: 무인항공기조종자격증(국토교통부)
- 문서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워드, MOS
- 프로그래밍언어: 자바, 자격증, OCJP
- 네트워크 자격증: CCNA, CCNP, 네트워크관리사
- 데이터베이스자격증: OCP
- 정보보안자격증: 정보보안기사, CISSP, CISA
- 운영체제자격증: 리눅스 마스터, LPIC

국제공인자격증

- MOS (Microsoft Office Specialist)
- ICDL (International Computer Driving Licence)
- MCSE(Microsoft Certified System Engineer)
- OCP (Oracle Certified Professional)
- CCNA (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 CCNP (Cisco Certified Network Professional)
- CCIE (Cisco Certified Internetwork Expert)
- SCSA(Sun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 SCNA (Sun Certified Network Administrator)
- SCJP (Sun Certified Java Programmer)
- SCJD (Sun Certified Java Developer)
- LPIC (Linux Professional Institute)
- ACE (Adobe Certified Expert)
- e-Biz Expert (CompTIA e-Biz Expert)

취업: 위성/항공정보 분야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같이 항공 및 위성 정보의 생성, 분석, 활용을 요구하는 국가 및 공공 기관
- 도시 계획, 국방, 재난/재해 분석, 환경 모니터링, 산림, 자원 탐사, GIS 활용 등의 공간 정보 전문 인력 수요가 있는 정부 및 민간 기업체 연구소

취업: 첨단IT분야

- IT 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기업, 멀티미디어를 포함하여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의 다양한 산업체
- 대용량의 항공 및 위성 영상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하는 핵심 기술인 영상처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처리 등의 첨단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첨단 IT 산업체

자격증 및 취업

최근 졸업생 취업 사례

- 포스코 (김O범)
- KT&G (박O진)
- 넷마블 리니지2 레볼류션 개발팀 (정O환)
- 넷마블 R&D 센터 (황O현)
- 넷마블 R&D 클라이언트 팀 (이O철)
- 네이버시스템 (나O웅)
- SK인포섹 (손O우)
- 예림당 전산정보실 / 나이스평가정보 (현O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O명)
- 탑엔지니어링 신기술개발팀 (최O형)
- 엠티콤 R&D 본부 Core Team (문O기)
- 필룩스 (이O웅)
- 세믹스 (오O룡, 박O수)



교육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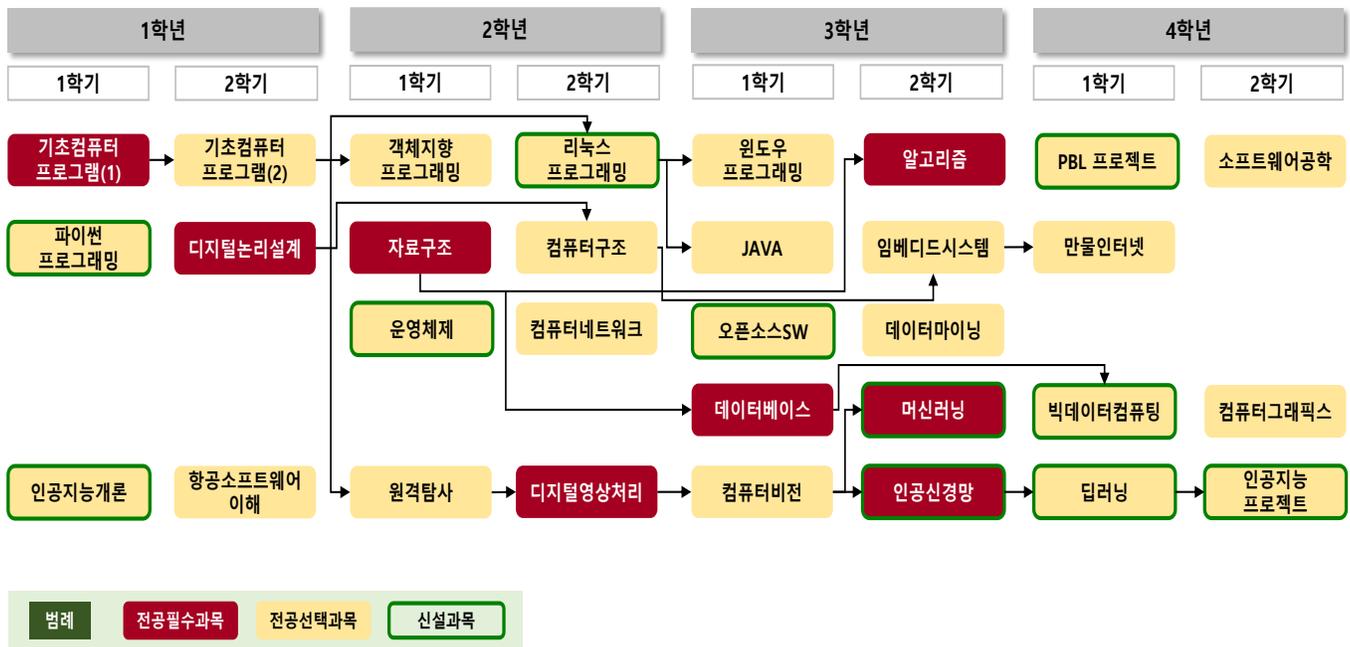
1. SW의 글로벌 표준 교육과정(ACM/IEEE 교육과정 구성) 중심의 SW 교육과정 구성

2. AI 핵심 기술과 연관된 영상 기술 분야 교과목의 체계적 구성

영상획득(원격탐사)->2차원 영상해석(영상처리)->3차원 영상해석(컴퓨터비전) ->영상합성/가시화(컴퓨터그래픽스)

3. 학과 특화 분야: AI 영상인식 (AI Image Recognition Application)

AI 영상인식 분야는 AI와 컴퓨터비전 기술에 기반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 응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분야임



교육 프로그램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 비교과교육 역량개발과 관련한 비교과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프로그램
- 비교과 활동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교과 교육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나눔을 배려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교육과학기술부, 2009)

비교과과정 교육목적

- 창의적 인재양성: 독창적이고 개방적 사고력을 겸비한 창의성과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눔과 배려를 겸비한 인성이 결합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
- 융합적 인재양성: 대학과 기업, 국가가 요구하는 분석·통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

비교과과정 교육과정의 필요성

- 다양하게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진학과 사회진출을 위해 취업에 대한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력을 겸비한 인재가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학생 역량지원 비교과(PLUS) 프로그램

- 유형 1: Personality Garden - 학습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긍정적 학습력 향상을 위한 기초 소양프로그램
- 유형 2: Living myself -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커뮤니티를 통한 교육과정의 연계 프로그램
- 유형 3: United Experience - 창의융합형 인재의 마인드 제고와 학습역량 공유와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 유형 4: Super Power - 현장직무의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학보 기사

필리핀 FEU-EAC와 유비쿼터스IT학과 MOU체결 (2011년)

유비쿼터스IT학과장 예철수 교수와 만화애니메이션 김동욱 교수는 지난 6월 2일 Far Eastern University-East Asia College의 Information Tech. Education학과(학과장 Prof. Adao)와 교류협력 MOU를 각각 체결하였다. 금번 MOU 체결에는 FEU-EAC의 Executive Director인 Benson T. Tan을 포함해서 FEU-EAC 관계자 6명과 우리대학 사회복지학과 임은의 교수가 함께 했다. 체결된 MOU에는 두 학과 사이의 교수 및 학생들 상호 교환, 공동 연구 및 강의, 교수 및 학생 연수 및 워크숍을 포함하여 두 학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FEU-EAC 대학

FEU-EAC는 다국적 기업과의 활발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필리핀의 명문대학입니다. FEU-EAC는 현재 Intel, IBM, Microsoft, HP, Fujitsu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포함하여 300여개 이상의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1월에는 필리핀 최연소로 FEU-EAC 학생이 전세계에 4000여명 밖에 없는 Microsoft사의 Most Valuable Professional (MVP)에 선정되는 등 IT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보 기사

국내 최초로 고해상도 위성 영상 융통합 처리 기술 개발

(2011년)

우리 대학 유비쿼터스IT학과 영상비전시스템 연구실(지도교수: 예철수 교수)은 지난 3년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 과제를 위탁받아 고해상도 다중센서 영상자료 융통합 처리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하였다. 금번에 수행된 연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향후 발사하게 될 다목적실용위성3호와 다목적실용위성 5호 위성 영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위성 영상 처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08년도에 과제가 기획되었으며, 이미 다목적실용위성2호 고해상도 광학 위성영상 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극동대학교 유비쿼터스IT학과 영상비전시스템 연구실에 본 과제를 위탁하여 지난 3년간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지난 2011년 2월에 국내 최초로 1m급 고해상도 광학 및 레이더 위성 영상 융통합 처리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국내외에 5건의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향후 다목적실용위성3호 및 5호 위성 영상 처리 기술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영상비전시스템 연구실에서는 지난 3월 일본 센다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의 피해 등과 같은 홍수 자연 재해 발생시 이를 다목적실용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신속히 분석하는 기술 개발을 향후 2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원으로 "도시지역 모니터링을 위한 시계열 위성 영상 분석 기술 개발"을 앞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다목적실용위성 2호 및 3호 위성 영상을 이용한 도시 지역 홍수 재해 탐지에 직접 활용하여 다목적실용위성을 이용한 대국민 홍수 재해 복구 지원 서비스에 직접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VSL 연구 영역

REMOTE SENSING

- Image Classification
- Image Registration
- Change Detection
- Urban Area Analysis
- Flood Damage Analysis

IMAGE PROCESSING

- Feature Extraction
- Image Segmentation
- Noise Removal
- Multi-scale Analysis

COMPUTER VISION

- Stereo Matching
- Man-made Object Detection
- 3-d Building Reconstruction

DATA FUSION

- Multi-sensor Image Registration
- Multi-sensor Image Fusion



학보 기사

GREEN 코엑스 홍보대사 최우수상 수상 소감문 (2011년)

그린 코엑스 홍보대사는 작게는 중수설비(물을 재활용하여 활용) 등과 같은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코엑스의 우수한 친환경 시설 및 친환경 경영을 홍보하고, 크게는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시스템의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으로 하여 창단하여 활동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전공의 한계를 뛰어 넘어 다른 분야에 대하여 배우고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전공과 접목하여 제 전공에 대해 더욱 실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할지 방향을 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과 생각을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나와 더불어 살아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어떠한 사고를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면서 내 현 위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인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내 장점은 무엇인지를 알게 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인생의 선배님들과 기업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느끼면서, 배우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매체를 통해 혹은 누군가 말해주어서 귀로 듣고 머리만으로 생각하는 간접적으로 배운 사회가 아닌 진짜 사회를 대학생의 신분으로 미리 경험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나의 미래상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엑스 홍보대사



유비쿼터스IT학과 3학년 임창범 학생이 GREEN 코엑스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코엑스의 친환경 정책 및 활동을 대내외 홍보하는데 기여하여 2011년 8월 30일에 홍보대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학보 기사

필리핀 해외봉사 활동 소감문 (2011년)

봉사를 하면서 처음에 가양각색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화합하고 힘을 합해야 하는 일이라 쉬운게 아니라 걱정이 되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끝나도록 같이 협조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다함께 열심히 땀 흘리고 웃으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걸 보면 이번 필리핀 해외봉사단은 정말 봉사를 하기위해 왔다는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포트를 해준 필리핀 대학교(UP Los Banos, FEU-East Asia College)의 친구들이 있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보다 원활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필리핀의 문화와 사람들을 알고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전보다 친숙하고 멀지 않은 나라라고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나와 봉사단원들이 필리핀에서 2주간 보내며 봉사한 것들이 많지도 않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받은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아이들의 따뜻한 눈빛을 통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동한 해외봉사단 팀장



유비쿼터스IT학과 현동한 학생은 2011년 하계 필리핀 해외봉사단 팀장을 맡았으며, 재학시절 전공 동아리 활동, GLDP 성적 우수 및 스피치 부분 수상 등의 이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국내 1위의 금융인프라 그룹인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정보개발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적어도 그 아이들 중 일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저는 이번 봉사활동은 의미 있었던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의 도움이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순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이번의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앞으로 보다 더 발전 하는데 발판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해봅니다.

이번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걸 보고 배우며 조금은 인격적 성숙을 이뤘다고 느낄 수 있었고, 봉사를 한다는 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의 의미임을 알았고, 봉사는 받는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사람 또한 즐거움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5일간의 5기 필리핀 해외봉사활동은 제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즐거운 기억이 가득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학보 기사

제1회 FEU-UPLB 국제워크숍 개최 (2011년)

유비쿼터스IT학과에서는 지난 11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필리핀국립대학(UPLB)의 컴퓨터사이언스학과와 공동으로 제1회 International Workshop on Collaboration between FEU & UPLB (IWFU 2011)를 개최하였다. 금번 워크숍은 우리 대학의 학과에서 추진된 첫 번째 국제 워크숍으로 두 학과 간의 교류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필리핀국립대학에서는 학과장 Mariano 교수와 Hermocilla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유비쿼터스IT학과에서는 학과장 예철수 교수와 남의석 교수, Neo Park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워크숍 첫날은 두 학과의 공동 연구 분야에 대해 4명의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이틀간은 학생들 대상으로 필리핀국립대학 교수들에 의해 튜토리얼이 진행되었다.

금번 워크숍을 통해 유비쿼터스IT학과의 구성원들이 국제화의 비전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두 학과의 교수들 간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신뢰와 우정을 쌓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금번 워크숍에서는 필리핀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에 대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 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두 학과 간의 협력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내년에 개최될 2차 국제워크숍에서는 참여 범위를 두 대학의 학생들에게도 확대하여 두 대학의 교수와 함께 학생들도 워크숍 발표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두 학과 간의 실질적인 교류 차원에서 유비쿼터스IT학과의 전공 과목을 유비쿼터스IT학과 교수와 필리핀국립대학 교수가 일정 기간 함께 팀티칭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하였다. 이를 통해 유비쿼터스IT학과 학생들이 필리핀국립대학 교수로부터 일정 기간 전공과목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교환학생 파견 이전에 현지 대학의 전공 수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필리핀국립대학교 UPLB



본교와 필리핀국립대학교 UPLB와 교류 협력을 시작한 후 우리 학과에서는 UPLB 컴퓨터사이언스 학과에 2011년에 3명의 학생을 교환학생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세 명의 학생은 필리핀에서 10개월간 두 학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학보 기사

제2회 FEU-UPLB 국제워크숍 개최 (2012년)

4월 19일(목)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본교 예술관 501호에서 유비쿼터스IT학과와 필리핀국립대학(UPLB) 컴퓨터사이언스학과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International Workshop on Collaboration between FEU & UPLB (IWFU 2012)의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유기일 총장, 김연 국제협력단장, 교무처장 예철수 교수, Cecilia Isidro Anido 교수, 유비쿼터스IT학과의 현득창 교수, 김성종 교수, 남의석 교수, 이덕진 교수를 비롯하여 유비쿼터스IT학과 학생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필리핀국립대학에서는 컴퓨터사이언스 학과의 Joseph Anthony Hermocilla 교수와 Fermin Roberto G. Lapitan 교수가 참석하였다.

개막식 축사에서 유기일 총장은 "2009년에 극동대학교와 필리핀국립대학교가 MOU를 체결한 이래로 두 대학 사이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해외 봉사활동 등의 영역에서 교류 협력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금번 제2회 IWFU 워크숍을 통해 유비쿼터스IT학과와 UPLB 컴퓨터사이언스 학과 간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라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필리핀국립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유비쿼터스IT학과 박상기 학생이 필리핀국립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미국 유타주립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유비쿼터스IT학과 허현주 학생이 교환학생 준비 과정 및 현지 학업 과정 등을 상세히 발표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지난 2월에 필리핀국립대학교와 필리핀 Far Eastern University 대학의 자원봉사 팀과 함께 진행된 제 6기 필리핀해외 봉사팀의 봉사 활동 영상이 상영되었다.



전공 팀티칭

금번 워크숍과 더불어 두 학과 간의 실질적인 교류 차원에서 유비쿼터스IT학과의 2학년 전공 과목인 객체지향프로그램 과목(담당 : 남의석 교수, 필리핀국립대학교 Fermin Roberto G. Lapitan 교수)에 대한 팀티칭이 4월 16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팀티칭을 통해 유비쿼터스IT학과 학생들이 필리핀국립대학교 교수로부터 교환학생 파견 이전에 전공 강의를 직접 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보 기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연구 협약 체결 (2014년)

본교 유비쿼터스IT학과 영상비전시스템 연구실(연구책임자: 예철수 교수)이 3월 12일(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정보공공활용사업의 연구 과제 선정 평가에 최종 선정됐다. 금번 연구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홍수 재해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아리랑 위성군(2호, 3호, 5호) 영상의 활용 기술 개발을 목표로 2014년 3월부터 2년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협약 연구 과제명은 "다중센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홍수 범람 지역 추출 및 피해지역 분석"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 및 운용 중인 아리랑2호, 3호, 5호 위성 영상을 통합 활용하여 홍수 피해 지역의 정확한 추출 및 분석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국내 민간 및 공공 목적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지진·태풍·폭설·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국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회원국들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는 국제 협력프로그램인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에 대한 정확한 재해 정보 제공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유비쿼터스IT학과 영상비전시스템 연구실은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원하에 2005년~2006년도에 아리랑2호 위성급의 고해상도 위성영상 처리 기술 개발, 2008년~2010년에는 아리랑3호 시스템종합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아리랑3호 및 아리랑5호급의 다중센서 영상자료 융통합 처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아리랑2호 영상을 이용한 시계열 위성 영상 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일본의 지진해일 피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책임자인 예철수 교수는 "금번 연구는 기존의 광학 위성영상인 아리랑2호 및 3호 영상뿐 아니라 금년 5월부터 공개될 아리랑5호 레이더 위성 영상을 통합 활용하는 기술 개발로 향후 국내외 활용을 통해 국가 위상 및 국익에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중센서영상처리기술

2014년~2015년 동안 개발된 다중센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홍수 범람 지역 추출 및 피해지역 분석 기술은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 : 4건
-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 2건
- 정부 위성영상활용협의체 초청 강연: 1건
- 국제우주교육 초청 강연: 3건
-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와 중국과학원 초청 강연: 2건
- 국제컨퍼런스 초청 강연: 1건
- FEU TECH 대학 초청 강연 : 1건

학보 기사

제4회 InUbit 2014 국제워크샵 개최 (2014년)

4월 28일(월) 오후 1시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본교 예술관 501호에서 본교 유비쿼터스IT학과, 필리핀극동대학교(FEU-EAC) 정보기술교육학과, 필리핀국립대학(UPLB) 컴퓨터사이언스학과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4회 International Workshop on Ubiquitous Technology (InUbit 2014)의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교무처장 남의석 교수, 대학원장 현득창 교수, 유비쿼터스IT학과장 이덕진 교수, 유비쿼터스IT학과 김성종 교수, 신예호 교수, 예철수 교수를 비롯하여 유비쿼터스IT학과 학생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필리핀극동대학교에서는 Eymard Pempaña 교수와 Jabes A. Mendoza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필리핀국립대학에서는 Shiela K. Borja 교수와 Reginald N. Recario 교수가 참석하였다.

개막식 축사에서 교무처장 남의석 교수는 “2011년에 유비쿼터스IT학과와 필리핀극동대학교 정보기술교육학과 간의 MOU가 체결된 후에 워크샵 및 팀티칭 등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고, 금번 제4회 InUbit 2014 워크샵을 통해 유비쿼터스IT학과와 필리핀극동대학교 정보기술교육학과, 필리핀국립대학 컴퓨터사이언스 학과 간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라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Jabes A. Mendoza 교수의 필리핀극동대학교 정보기술학과에 대한 소개와 홍보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이어서 필리핀국립대학의 Reginald N. Recario 교수가 필리핀국립대학 컴퓨터사이언스학과에 대한 학과 소개의 시간이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 필리핀극동대학교와 필리핀국립대학의 자원봉사 팀과 함께 진행된 본교 필리핀해외봉사팀의 봉사 활동 영상이 상영되었다.



학과장 인터뷰

유비쿼터스IT학과장 이덕진 교수는 “2011년 1회 국제워크샵을 필리핀국립대학 컴퓨터사이언스학과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래 해마다 자매 대학들과의 교류를 발전시켜서 금년에는 두 자매 대학을 동시에 초청한 국제 워크샵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세 학과 간의 공동 연구 및 학생들의 워크샵 발표 참여 등 학과 간의 교류 협력 단계를 보다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학보 기사

FEU-EAC 대학 교수 초청 전공 팀티칭 진행 (2014년)

본교 유비쿼터스IT학과에서는 지난 2014년 4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우리 대학 자매 대학인 FEU-EAC 대학의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학과의 Eymard B. Pempaña 교수를 초청하여 전공 팀티칭을 진행하였다. 유비쿼터스IT학과의 Introduction to 3D Programming 과목과 Digital Image Processing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Game Development using Unity Game Engine'의 주제로 진행된 금번 팀티칭은 대표적인 게임 제작 소프트웨어인 Unity 3D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 학습과 더불어 실제 최신 버전의 Unity 3D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실습을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의 게임 제작 기법 및 활용 능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학보 기사

김성종 교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15년)

유비쿼터스IT학과 김성종 교수가 9월 9일(수)부터 9월 11일(금)까지 열렸던 제 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이번에 개최된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가 후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널리 알리고, 기술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하여 기술 인재가 대우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박람회이다.

이날 김성종 교수는 2006년부터 한국정보보호학회 협동이사로서, 산업기술보호 및 정보보호 등 기술유출 방지기술, 사이버보안관제 및 디지털포렌식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극동대 유비쿼터스IT학과 창설 등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력 양성 기여함이라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에서 김성종 교수는 “아직 국내 기술보호 관련 제반 상황과 여건이 부족한 편이다”며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나라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상자 : 김성종 교수



김성종 교수는 디지털디자인연구소(Digital Design Lab)의 지도교수입니다



학보 기사

필리핀극동대학교와 제5회 InUbit 2015 국제워크샵 개최 (2015년)

5월 19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3시 40분까지 본교 예술관 501호에서 본교 유비쿼터스IT학과와 필리핀극동대학교(FEU-TECH) 정보기술교육학과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5회 International Workshop on Ubiquitous Technology (InUbit 2015)의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교무처장 남의석 교수, 국제협력단장 하연찬 교수, 대학원장 현득창 교수, 유비쿼터스IT학과장 이덕진 교수, 유비쿼터스IT학과 김성종 교수, 신예호 교수, 예철수 교수를 비롯하여 유비쿼터스IT학과 학생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필리핀극동대학교에서는 Rossana Adao 교수와 Abigail Alix 교수가 참석하였다.

개막식 축사에서 국제협력단장 하연찬 교수는 “자매 대학인 필리핀극동대학교와 유비쿼터스IT학과 간의 국제워크샵 개최를 통해 양교 간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무처장 남의석 교수는 환영사가 있었으며, 필리핀극동대학교의 환영사에서 Rossana Adao 교수는 “양교 간의 교류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공동 연구, 교수 및 학생 교류 등에 보다 의미있는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Rossana Adao 교수의 주제 강연이 ‘극동대학교-필리핀극동대학교간의 IT 연구 프로젝트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Abigail Alix 교수가 ‘Interface Design and Vector Graphics’의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학간 MOU 체결 추진

유비쿼터스IT학과장 이덕진 교수는 “2011년 제1회 국제워크샵을 필리핀자매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래 해마다 자매 대학과의 교류를 발전시켜서 왔고, 특히 금년에는 유비쿼터스IT학과와 필리핀극동대학교(FEU-TECH) 정보기술교육학과 간에 체결된 MOU를 두 대학 간의 MOU 체결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며 “향후 대학 본부를 통한 대학간 MOU 체결을 기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공동 연구 및 교환 학생 파견 등 두 대학 간의 교류 협력 단계를 보다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언론/학보 기사

예철수 교수, 대한원격탐사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2015년)

극동대학교(총장 김범중)는 유비쿼터스IT학과 예철수 교수가 대한원격탐사학회가 수여하는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예철수 교수는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폐회한 2015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영상등록을 위한 Mutual Information 기반의 원형 템플릿 정합'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 논문은 인공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지구 표면의 변화를 탐지하기 위한 영상 유사도 측정 기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격 탐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여되는 대한원격탐사학회 우수논문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대한원격탐사학회지의 전년도 게재 논문들 가운데 우수한 논문 1~2편을 매년 선정하여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는 예철수 교수가 2014년도 30권 5호에 게재한 논문의 업적을 인정받아 단독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위성영상처리 전문가인 예철수 교수는 현재 국내 항공 우주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아리랑위성 영상을 활용한 홍수 재해 지역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등 위성 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하고 있다.

수상자 : 예철수 교수



예철수 교수는 영상 비전 시스템 연구실(Image and Vision System Lab)의 지도교수입니다

영상등록을 위한 Mutual Information 기반의 원형 템플릿 정합

예 철 수[†]

극동대학교 유비쿼터스IT학과

Mutual Information-based Circular Template Matching for Image Registration

Chul-Soo Ye[†]

Department of Ubiquitous IT, Far East University

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for designing circular template used in similarity measurement for image registration. Circular template has translation and rotation invariant property, which results in correct matching of control points for image registration under the condition of translation and rotation between reference and sensed images. Circular template consisting of the pixels located on the multiple circumferences of the circles whose radii vary from zero to a certain distance, is converted to two-dimensional Discrete Polar Coordinate Matrix (DPCM), whose elements are the pixels of the circular template. For sensed image, the same type of circular template and DPCM are created by rotating the circular template repeatedly by a certain degree in the range between 0 and 360 degrees and then similarity is calculated using mutual information of the two DPCMs. The best match is determined when the mutual information for each rotation angle at each pixel in search area is maximum. The proposed algorithm was tested using KOMPSAT-2 images acquired at two different times and the results indicate high accurate matching performance under image rotation.

Key Words : Image Registration, Similarity Metric, Mutual Information, Circular Template

언론/학보 기사

예철수 교수, 한국과총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2016년)

극동대학교는 AI컴퓨터공학과 예철수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에서 주관하는 '제26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예 교수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과총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거행된 시상식에서 'A de-noising method based on connectivity strength between two adjacent pixels'라는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2015년 2월에 발간된 대한원격탐사학회 논문집 제31권 1호에 게재된 논문으로 원격 탐사 영상의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비등방성 확산 필터의 계수를 영상 화소 간의 연결 강도로 제어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소개하여 원격 탐사 영상의 잡음 제거 분야에 크게 기여했다. 예 교수는 이번 과총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외에도 2015년도에 대한원격탐사학회가 수여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아리랑위성 영상 자료 품질 전문가 등으로 위성원격탐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 과총 우수논문상

한국 과총의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의 연구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과총 소속 학회에서 전년도에 발표된 우수논문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된 논문(학회당 1편)을 과총에서 종합 심사하여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논문상입니다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1, No.1, 2015, pp.21-28
http://dx.doi.org/10.7780/kjrs.2015.31.1.3

ISSN 1225-6161 (Print)
ISSN 2287-9307 (Online)

Article

A de-noising method based on connectivity strength between two adjacent pixels

Chul-Soo Ye^{*}
Department of Ubiquitous IT, Far East University

Abstract : The essential idea of de-noising is referring to neighboring pixels of a center pixel to be updated. Conventional adaptive de-noising filters use local statistics, i.e., mean and variance, of neighboring pixels including the center pixel. The drawback of adaptive de-noising filters is that their performance becomes low when edges are contained in neighboring pixels, while anisotropic diffusion de-noising filters remove adaptively noises and preserve edges considering intensity difference between neighboring pixel and the center pixel. The anisotropic diffusion de-noising filters, however, use only intensity difference between neighboring pixels and the center pixel, i.e., local statistics of neighboring pixels and the center pixel are not considered. We propose a new connectivity function of two adjacent pixels using statistics of neighboring pixels and apply connectivity function to diffusion coefficient. Experimental results using an aerial image corrupted by uniform and Gaussian noises show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removed more efficiently noises than conventional diffusion filter and median filter.

Key Words : adaptive de-noising filter, anisotropic diffusion, mean curvature diffusion, noise reduction

학보 기사

제6회 InUbit 2016 국제워크숍 개최 (2016년)

5월 17일(화) 오후 3시부터 4시 10분까지 본교 예술관 501호에서 본교 유비쿼터스IT학과와 필리핀극동대학교(FEU-TECH)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6회 International Workshop on Ubiquitous Technology (InUbit 2016)의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국제협력단장 이효선 교수, 유비쿼터스IT학과장 이덕진 교수, 현득창 교수, 김성중 교수, 남의석 교수, 신예호 교수, 예철수 교수를 비롯하여 유비쿼터스IT학과 학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필리핀극동대학교에서는 Ace Lagman 교수와 Anthony Aquino 교수가 참석하였다.

예철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서 국제협력단장 이효선 교수는 축사를 통해 “2011년에 극동대학교 유비쿼터스IT학과와 필리핀국립대학교 정보기술교육학과가 MOU를 체결한 이래로 상호 관심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금번 제6회 국제워크숍 개최를 통해 연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필리핀극동대학교의 환영사에서 Ace Lagman 교수는 “양교 간의 긴밀한 교류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개최된 금번 국제워크숍을 통해 공동 연구 분야 등에 향후 보다 의미있는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Ace Lagman 교수의 주제 강연이 ‘Data Analytics’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Anthony Aquino 교수가 ‘Cloud Computing’의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국제 공동 연구 착수

금번 워크숍과 병행하여 유비쿼터스IT학과에서는 예철수 교수를 주관 연구책임자로 하고 필리핀 공동연구자로 Ace Lagman 교수와 2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공위성영상을 이용한 도시 지역 분류 기술 연구”와 남의석 교수를 주관 연구책임자로 하고 필리핀 공동연구자로 Anthony Aquino 교수가 참여하는 “화재시 출구 안내를 위한 오디오 안내 시스템 연구”에 대한 협의를 진행되었습니다. 유비쿼터스IT학과와 필리핀극동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금년 하계 방학 중에는 필리핀극동대학교에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학보 기사

제7회 InUbit 2017 국제워크숍 개최 (2017년)

5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본교 예술관 501호에서 본교 AI컴퓨터공학과와 필리핀극동대학교(FEU-TECH)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7회 International Workshop on Ubiquitous Technology (InUbit 2017)의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AI컴퓨터공학과장 이덕진 교수, 현득창 교수, 김성종 교수, 남의석 교수, 신예호 교수, 예철수 교수를 비롯하여 AI컴퓨터공학과 학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필리핀극동대학교에서는 Ace Lagman 교수와 Joferson Bombasi 교수가 참석하였다.

예철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서 남의석 교수는 축사를 통해 “2011년에 필리핀극동대학교 정보기술교육학과와 MOU를 체결한 이래로 상호 관심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금번 제7회 국제워크숍 개최를 통해 연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필리핀극동대학교의 환영사에서 Ace Lagman 교수는 “금번 국제워크숍을 통해 공동 연구 분야 등에 향후 보다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Ace Lagman 교수의 주제강연이 ‘Development of Personalized Learning Rules of an E-Learning System’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Joferson Bombasi 교수가 ‘Noncontrast CT scan image analyzer for kidneys, ureters and bladder’의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공동 연구 결과 공유

AI컴퓨터공학과장 이덕진 교수는 “필리핀자매대학과의 국제워크숍을 해마다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자매 대학과의 교류를 발전시켜서 왔고, 작년에는 필리핀국립대학교에서 공동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금번 워크숍을 통해 지난 1년간 수행한 공동 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학보 기사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국제워크숍 초청 강연 (2017년)

본교 AI컴퓨터공학과 예철수 교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국제기구인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와 중국과학한림원(CAS)의 공동 초청을 받아 지난 2017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산야에서 개최된 국제 워크숍(CAS-AASSA Joint Workshop on Big Earth Data for Disaster Risk Reduction in Asia)에서 홍수 재해 분야 한국 대표로 참가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국제 워크숍은 자연 재해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예철수 교수는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의 추천을 받고 국제한림원연합회(InterAcademy Partnership, IAP)의 후원으로 금번 국제 워크숍에 참가하여 두 번의 강연을 하였다. 예철수 교수는 20개국에서 선발된 과학자들에 대한 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 강연에서는 'Change detection of flooded areas using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ry'의 주제로, 중국과학한림원과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공동으로 진행된 전체 워크숍에서는 'Monitoring of flooded areas using multi-sensor satellite imagery'를 주제로 각각 강연하였습니다



학보 기사

InCITE 2018 국제 학술대회 총회 초청 강연 (2018년)

예철수 교수는 지난 2018년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in Technology)의 총회 강연자로도 초청받아 'Image processing and remote sensing technology in disaster risk reduction'의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예철수 교수는 "금번 두 번의 국제 워크숍 및 컨퍼런스 초청 강연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수행된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자연 재해 저감을 위한 국제 협력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학보 기사

졸업생 초청 전문가 특강 진행 (2018년)

AI컴퓨터공학과 졸업생 초청 전공 특강이 본교 교육개발센터의 전공 및 계열별 특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월 14일~15일에 걸쳐서 공학관 310호에서 진행되었다. 전공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첫째 날 특강에서 반도체 등의 최첨단 장비를 공급하는 국내 대표적인 종합장비회사인 (주)탑엔지니어링 신기술개발팀에서 근무하며 머신 비전(Machine Vision) 부문 총괄을 맡고 있는 최재형 졸업생(2013년 AI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졸업)이 강사로 초청되어 '머신 비전 기술과 이를 활용한 실무 활용 사례'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최재형 강사는 재학시절 필리핀 해외 봉사만 3회를 다녀오고 글로벌 리더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봉사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고 금번 특강에서는 전공 분야의 최신 기술의 소개와 더불어 재학생들에게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초청 전문가: 최재형



금번 특강에 초청된 전문가는 AI컴퓨터공학과 대학원을 2013년 졸업한 최재형 졸업생으로 재학시절 필리핀 해외 봉사만 3회를 다녀오고 글로벌 리더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봉사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보 기사

졸업생 초청 전문가 특강 진행 (2018년)



둘째 날 특강에서는 국내 1위의 금융인프라 그룹인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정보개발실에 근무하는 현동한 졸업생(2013년 AI컴퓨터공학과 졸업)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산업계 최신 동향'의 주

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현동한 강사는 재학시절 필리핀 해외봉사 팀장, 전공동아리 활동, GLDP 성적 우수 및 스피치 부분 수상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특강을 통해 다양한 IT 개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와 특성에 대해 강연하였다.

AI컴퓨터공학과장 예철수 교수는 "금번 특강은 해외봉사활동 등 우리대학의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에 충실히 참여한 경험과 더불어 전공 분야의 탁월성을 갖추고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졸업생들이 후배들에게 현장 실무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시에 의미 있는 학창 시절을 위한 조언을 하는 등 다목적으로 진행된 특강이었다"라고 전했다.



초청 전문가: 현동한



금번 특강에 초청된 전문가는 AI컴퓨터공학과를 2013년에 졸업한 현동한 졸업생으로 재학시절 필리핀 해외봉사 팀장, 전공동아리 활동, GLDP 성적 우수 및 스피치 부분 수상 등의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보 기사

제8회 InUbit 2018 국제워크숍 개최 (2018년)

5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본교 예술관 501호에서 본교 AI컴퓨터공학과와 필리핀극동대학교(FEU-TECH)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8회 International Workshop on Ubiquitous Technology (InUbit 2018)의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AI컴퓨터공학과 이덕진 교수, 남의석 교수, 예철수 교수를 비롯하여 AI컴퓨터공학과 학생 70여명이 참석하였다. 필리핀극동대학교에서는 Joie Maghanoy 교수와 Kirk Awat 교수가 참석하였다.

예철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서 남의석 교수는 축사를 통해 “2015년에 필리핀극동대학교와 우리 대학교가 MOU를 체결한 이후 상호 관심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금번 제8회 국제워크숍 개최를 통해 연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Joie Maghanoy 교수의 주제 강연이 ‘Crime Mapping Report Mobile Application Using GIS’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Kirk Awat 교수가 ‘Internet of Things (IoT): Trends and Application’의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금번 워크숍 발표와 더불어 5월 30일 FEU TECH 교수들과의 회의에서 남의석 교수는 AI컴퓨터공학과와의 드론 관련 교과목 운영에 대해 소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 연구 결과 논문 발표

AI컴퓨터공학과장 예철수 교수는 “AI컴퓨터공학과는 필리핀자매대학교의 국제워크숍을 해마다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자매 대학교의 교류를 발전시켜서 왔고, 작년에 성공적으로 완료된 필리핀극동대학교와의 공동 연구 결과는 지난 5월 국제 학술대회에서 공동으로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하였고 금년 6월에는 SCOPUS 급 저널에 두 번째 논문의 발표가 확정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컴퓨터공학과 최신 소식

한국연구재단 2018년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선정

(2018년)

한국연구재단의 2018년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에 시컴퓨터공학과 의 예철수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연구 과제는 '고해상도 이종 센서 영상의 다중 특징 정보를 이용한 영상 등록 및 영상 분류'이며 본 연구에서 예철수 교수는 서버미터급의 이종 광학 위성 영상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 고해상도 이종 영상 간의 영상 등록 기법을 개발하고 고해상도 영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상세한 지표 속성도 분류할 수 있는 분류 기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국제 공동 연구 성과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2018년)

시컴퓨터공학과는 FEU TECH 대학과의 공동 연구 결과를 2018년 5월 9일 ~11일 사이에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2018 (ISRS 2018)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논문 제목은 "Improvement of classification accuracy using index image combination" 으로 논문 저자로 시컴퓨터공학과에서는 대학원생 박재현 학생, 예철수 교수가 참여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2018
9 - 11 May 2018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Korea



시컴퓨터공학과 최신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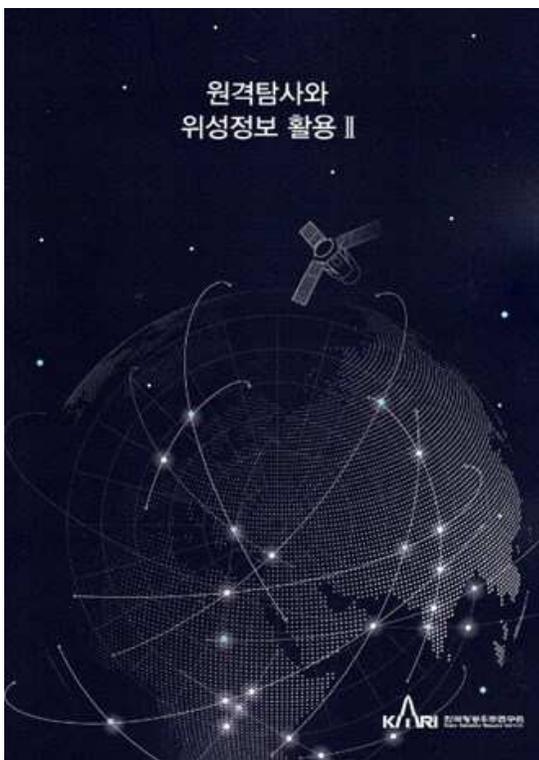
정부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기술교육 강연 (2018년)

시컴퓨터공학과 예철수 교수는 2018년 5월 24일에 대전 계룡 스파텔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의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소속기관 사용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의 강연자로 '영상강조 및 융합'의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예철수 교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소속기관 사용자를 위해 2017년에 발간한 '원격탐사와 위성정보 활용II' 교재 개발에도 참여하였고 금번 강연은 교재 저자 강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성정보활용협의체는 아래의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을 구성된 위성정보활용과 관련된 범부처 협의체입니다.

※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가입 기관(정부부처): 기재부, 통일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농식품부, 통계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가입 기관(산하기관): 감사연구원, 국가기상위성센터, 질병관리본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AI컴퓨터공학과 최신 소식

국제 공동 연구 성과 국제학술대회 WCSE2018발표 (2018년)

AI컴퓨터공학과는 FEU TECH 대학과의 공동 연구 결과를 2018년 6월 28일~30일 사이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인 8th International Workshop o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WCSE 2018)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WCSE은 SCOPUS에 등재된 저널로 최종 발표 승인이 난 논문 제목은 "Extraction of Vegetation Image Index Using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Algorithm"입니다. 논문 저자로 AI컴퓨터공학과에서는 예철수 교수가, FEU TECH 대학에서는 Ace Lagman 교수, Joferson Bombasi 교수가 참여하였습니다.



산학협동재단 2018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선정 (2018년)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이 지원하는 2018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 AI컴퓨터공학과 남의석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5월 30일에 발표된 금번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서 남의석 교수는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스마트 폰 센서만을 이용한 실내위치인식 기술 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맡아서 (주)테크원시스템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컴퓨터공학과 최신 소식

한국우편사업진흥원(POSA) IT육성장학생 선정 (2018년)

한국우편사업진흥원(POSA)에서 지원하는 2018년 IT육성장학생에 우리학과 2학년 이O산 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신청한 IT육성장학생 선발 사업은 전공 관련 학업의지 계획서, 전공관련 활동 및 봉사활동, 추천서 등을 평가하여 전국의 대학 및 전문대학 당 2명의 추천 학생을 대상으로 최종 100명이 선발된 사업으로 선발된 IT육성장학생은 장학금(학기당 100만원)을 졸업 시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O산 학생은 2학년 전공 과정으로 이미 원격탐사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영상처리, 컴퓨터비전, 패턴인식, 컴퓨터그래픽스의 전공 심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이수하게 되며 졸업 후 관련 분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 지원의 국제공동연구 성공적으로 종료 (2018년)

시컴퓨터공학과 예철수 교수의 영상 비전 시스템 연구실(Image and Vision System Lab.)에서 초청한 필리핀 Cararga State University의 Michelle V. Japitana 교수와의 공동 연구가 지난 7월 4일 성공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금번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수질 오염 모니터링 관련 기술 개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시컴퓨터공학과 최신 소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우주교육 강연 (2018년)

시컴퓨터공학과 예철수 교수가 2018년 7월 6일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된 국제우주교육(KARI International Space Training 2018)의 강연을 맡아서 "Monitoring of Flooded Areas Using Multi-sensor Satellite Imagery"의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국제우주교육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해외에서 선발된 항공우주분야 전문가 29명이 참가한 교육으로 예철수 교수는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재해를 다양한 아리랑 위성 센서들을 이용하여 모니터링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컴퓨터공학과 최신 소식

‘위성정보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분과위원장 선임

(2018년)

2018년 8월 24일에 ‘제2차 위성 정보 활용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 회의에서 시컴퓨터공학과 예철수 교수가 <활용기술 분과>의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금번 회의는 범 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인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 계획’의 기획 회의로 활동 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8년 2월에 ‘3차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의 미래 위성 개발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20년 이내에 우리 나라는 소형 위성은 8기, 차세대중형위성은 73기, 다목적실용위성은 8기, 정지계도위성은 21기, 초소형위성은 약 30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현재 기획연구 중인 ‘제2차 위성 정보 활용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개발될 위성(소형 위성 2기, 차세대중형위성 4기, 다목적실용위성 2기, 천리안위성 2기)를 통해 확보하게 되는 위성 정보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담게 될 예정입니다.

대한원격탐사학회 총무이사 선임 (2018년)

시컴퓨터공학과 예철수 교수가 2019년부터 임기 2년의 대한원격탐사학회 총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대한원격탐사학회는 원격탐사 분야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회로 인공위성, 항공기 및 무인기 등을 이용하여 지상, 해양, 대기 등 다양한 분야의 원격탐사 연구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4년에 설립된 학회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원격탐사학회 이사로 활동중인 예철수 교수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원격탐사학회지 편집위원,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의 기술위원, 대한원격탐사학회 학술대회 기술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AI컴퓨터공학과 최신 소식 (영자 신문 기사)

FEU Korea hosts international research internship and research collaboration for a Philippines scholar (2018년)

The Far East University has been active in build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ince the year 2008. This time, the university took pride in hosting a Doctor of Engineering student, Engr. Michelle V. Japitana, from the University of San Carlos (Philippines) through a 6-months Laboratory Internship Program (LIP) at FEU's Image and Vision Laboratory of the Department of Aviation and IT Convergence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Chul-soo Ye. Engr. Japitana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the College of Engineer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Caraga State University. The LIP is designed for doctoral students who wish to acquire research and technology exposure and at the same time establish a collaborative research work. Basing on the implemented research studies/ projects and the facility available at the Image and Vision Laboratory and the prolific expertise of Prof. Ye, Engr. Japitana decided to apply for LIP at FEU Korea. As a visiting research scholar, Engr. Japitana was given full access to the resources and facilities at the Image and Vision Laboratory and is currently working on her research focusing on developing image processing techniques for extracting water bodies from remote sensing datasets by employing computer vision technologies in a C++ platform. The intensive training and profound mentoring of Prof. Ye, who is a practitioner in Remote Sensing and Computer Vision and very well-versed in image processing, has given Engr. Japitana new learnings and significant research results that are equally valuable outcomes in undertaking the LIP and in finishing her dissertation study. The LIP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Enginee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echnology (ERDT) Sandwich Program Funding of the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 Philippines. During the 6-months LIP of Engr. Japitana, she was generously housed at the International Dormitory of FEU.

Michelle Japitana 교수



AI컴퓨터공학과 예철수 교수의 영상 비전 시스템 연구실(Image and Vision System Lab.)에서 필리핀 Caraga State University의 Michelle V. Japitana 교수를 초청하고 극동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정식 채용하여 올 해 2월 초부터 7월 초까지 5개월 동안 극동대학교에 체류하며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Japitana 교수의 연구 및 체류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필리핀 과학교육부의 지원을 받으며 예철수 교수는 공동연구의 책임자로 함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시컴퓨터공학과 최신 소식

필리핀극동대학교와 제9회 InUbit 2019 국제워크샵 개최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본교 K-SMART 대강당에서 시컴퓨터공학과와 필리핀극동대학교(FEU-TECH)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9회 International Workshop on Ubiquitous Technology (InUbit 2019)의 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필리핀극동대학교에서는 Roman Madrid De Angel 교수가 Web Frameworks의 주제로, Elisa Villamor Malasaga 교수가 Image Processing의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AI컴퓨터공학과 최신 소식

국제 공동 연구 성과 논문 발표 (2019년)

2018년 AI컴퓨터공학과 예철수 교수의 영상 비전 시스템 연구실(Image and Vision System Lab.)과 Cararga State University의 Michelle V. Japitana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가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저널 5월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논문제목: Combining Water Indices to Detect Water Bodies using Landsat 8 OLI).

넷마블 리니지 2 개발팀 졸업생 방문 (2019년)

현재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개발팀에 근무하고 있는 AI컴퓨터공학과 정O환 졸업생이 지난 5월 7일 본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정O환 졸업생은 07학번 졸업생으로 현재 넷마블에는 정O환 졸업생 이외도 황O현(넷마블 R&D 센터), 이O철(넷마블 R&D 클라이언트 팀) 졸업생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 과제 선정 (201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다목적실용위성 7호 관련 연구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예철수 교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우주교육 강연 (2019년)

AI컴퓨터공학과 예철수 교수가 2019년 7월 9일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된 국제우주교육(KARI International Space Training 2019)의 강연을 맡아서 "Monitoring of Flooded Areas Using Multi-sensor Satellite Imagery"의 주제로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재해를 다양한 아리랑 위성 센서들을 이용하여 모니터링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컴퓨터공학과 최신 소식

졸업생 초청 전문가 특강 (2019년)

시컴퓨터공학과 졸업생 초청 전공 특강이 본교 교육개발센터의 전공 및 계열별 특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월 17일 공학관 310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공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본 특강에서 반도체 등의 최첨단 장비를 공급하는 국내 대표적인 종합장비회사인 ㈜탐엔지니어링 미래사업부에서 근무하며 머신비전(Machine Vision) 부문 총괄을 맡고 있는 최재형 졸업생(2013년 AI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졸업)이 강사로 초청되어 '머신 비전'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과제 선정 (2020년)

시컴퓨터공학과 영상비전시스템 연구실(연구책임자: 예철수 교수)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연구 협약을 지난 2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연구 과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운용 중인 아리랑위성 영상을 이용한 지상 분석 기술 개발을 목표로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약 연구 과제명은 "아리랑위성 영상자료 객체기반 영상분석기법 개발"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 및 운용 중인 아리랑2호, 3호, 3A호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지상의 속성을 객체 단위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위성 정보 활용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산하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위성정보활동협의체에 제공되어 위성 영상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공공분야 위성정보 활용 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학생 에세이 : 해외봉사활동

Friendly, Kind-hearted and Caring (2012년)

Friendly, kind-hearted and caring. Those are just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Volunteers who came here. I saw how they sympathized with the situation of the street kids. They were so patient in handling them even if the kids were so unruly. They somewhat spoiled the children by doing the things that the kids asked them to do. They danced and sang for them not with any complaints and hesitations, but with joy and love for them. Even if it was difficult for them to communicate with the kids because the kids know only few English words, still, they managed to enjoy the time that they were with them.

As what I know, the Korean Volunteers originally didn't know each other. They were just able to meet one another sometime before they go to the Philippines or maybe on the day itself. But in spite of it, they were able to show us unity as if they ha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When they were with each other, I saw that there was no awkward moment. It's so nice to see them going along well with one another.

Having them as our guests made us also meet new friends, both Koreans and Filipinos. They helped us find the "volunteer side" in us. They have treated us nicely during their stay in our College. With the closeness that we had, we were able to see them again on the last day of their stay here in the Philippines and made our hopefully-not-last memories together. With them, we have gained new and nice friends. We hope that they will all come back and make new memories again.

Stephany Evangelista



Stephany Evangelista 학생은 FEU -East Asia College BS Information Technology 학생으로 우리 대학의 필리핀 마닐라 해외봉사에 여러 차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학생 에세이 : 해외봉사활동

February 2012: FEU-South Korea and UPLB on Volunteerism (2012년)

On the 6th of February 2012, 13 student and 2 faculty volunteers from Far East University South Korea (FEU) had visited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s Baños (UPLB) as their partner for the Volunteer Program. This is a week-long program which includes different activities such as art workshops, sports workshop and school restoration. This caters Filipino grade school children in selected areas in the Philippines. In partnership with UPLB, these selected areas were coordinated by the Ugnayan ng Pahinungod, one of the offices under the Vice Chancellor on Research and Extension that renders community and/or public service by volunteerism. The visited areas were the elementary schools of Limao and Bitin both in Bay and Paowin in Cavinti which are all located in the province of Laguna. Filipino student volunteers had also participated by assisting the Korean volunteers in each activity.

According to one of the Filipino children from one of the areas, they have felt that the Korean volunteers were warm-hearted and sincere in doing what they have to do and they did not feel any difference even if they are foreigners. Hence, this is a manifestation of a good interaction between the Korean volunteers and Filipino children. Getting this kind of feedback, all the activities are considered as a big SUCCESS.

Aside from the main objective of the Volunteer Program – helping the underserved people, the program implicitly incorporates cultural exchange.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Korean and Filipino volunteers have become an avenue to learn and discover things between the two represented countries. Languages, foods, arts and practices, which are of difference, were shared. Even some of the historical places like century-old churches and natural/ecological attractions like the Pagsanjan Falls were also visited to give the Korean volunteers a quick preview of the Philippines.

The activities were ended by a closing program where intermission numbers are presented and messages are given. The Korean volunteers had left and were sent off to the airport going back to South Korea on the 12th of February 2012.

Carmina B. Delas Alas



Carmina B. Delas Alas 학생은 필리핀국립대학교 UPLB 학생으로 우리 대학의 해외봉사팀과 함께 여러 차례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입니다

학생 에세이 : 해외봉사활동

한 움큼의 습기와 한 움큼의 열기 (2012년)



한 움큼의 습기와 한 움큼의 열기, 이것이 내가 느낀 필리핀의 첫 느낌이었다. 처음의 각오와는 달리 그대로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싣고 돌아가고

싶을 만큼 습한 환경은 날 회의가 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참고 시작한 이 주간의 여정. 그 여정의 끝에서 지난날을 돌아보고자 한다.

봉사활동단의 팀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봉사단원으로써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지배적이었다. 그렇기에 출발하기 전부터 이것저것을 준비하기에 바빴고, 또한, 그런 바쁜 모습을 새삼 즐기며 봉사행 비행길에 올랐다. 도착해서 느끼는 묵직한 중압감에 다시 한번 봉사활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처음으로 우리를 맞이해준 것은 필리핀의 열대나무와 더위였다. 그런 더위와 함께 우리는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봉사를 진행하면서 또한, 그들을 알아가면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 속에서 꿈틀 뒀다. 이때까지는 이러한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저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을 만나 당연히 느끼는 측은지심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봉사하러 간 우리 팀을 밝게 웃으며 환대했고, 우리가 준비해간 것들을 열심히 지켜보고 따라해 주면서 우리를 존중해주었다.

처음의 우려처럼 한글도 통하지 않고, 영어도 서툰 우리와 그쪽 아이들이 어떻게 상호 소통을 할지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그러한 걱정은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모두 해소되었다. 태권도를 가르치며 그들과 행동을 함께 했으며, 미술활동을 하며 그들과 살을 맞대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봉사활동 팀원중에 영어를 가장 못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나를 꼽을 것이다. 남보다 단어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문장을 연결하는 것도 모른다.

해외봉사 : 안영만



SI컴퓨터공학과 안영만 학생은 제 6기 동계 필리핀 해외봉사단 팀장으로 봉사하였으며 글로벌봉사리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런 내가 그곳에 가서 다른 팀원에게 뒤지지 않고 앞장서서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말로써 소통하려 하지 않고, 눈빛과 마음으로 소통하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너무나 어려운 것은 영어고수들의 도움을 받은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들의 몸에서 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악취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들을 알고 난 뒤에 느껴지는 것은 악취가 아닌 그들이 생을 살아가는 삶의 향기였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향기롭고, 달콤했으며, 강인했던 그 향기를 아마 쉽게 잊지 못할 것이다.

더하여, 처음으로 맡은 '장'자리에서 큰 문제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에는 위에서 지켜봐 주신 교수님 두 분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에 함께 해준 팀원들이 함께해줘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듬직하게 옆에서 나를 보조해준 재형이와 유미,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웃음이 예쁜 아라, 개그코드가 남달랐던 기우, 어울림이 멋졌던 덕승과 한영, 필리핀이 적성에 맞는다는 아림, 항상 분위기를 띄우려고 시도 하는 기동, 괜시리 웃기 좋아하는 경호, 아이들과 잘 놀던 용찬, 든든한 통역가이자 믿음 가는 씨니, 그리고 인영이까지 누구 하나 따로 놀지 않고, 모두가 함께 호흡하면서 나름의 방법으로 팀장인 나를 보조해준 덕분에 이주간의 팀장역할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마지막으로 이 지면을 통해 말하고 싶다. 이주 동안 잘 따라서 임무수행해준 열 두 팀원과 저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내어주신 예철수교수님과 김동욱교수님 모두 감사드리며,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간직하겠습니다.



학생 에세이 : 교환학생

유타주립대학교 교환학생 소감 (2012년)



지난 학기 미국 유타주립대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온 유비쿼터스IT학과과 4학년 허현주입니다. 한 학기라는 것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공부, 영어, 여행 등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문화를 체험 하는 것은 사람, 상황 들과 마주치며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학교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값진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학교생활과는 다른 커리큘럼의 틀에서 열의 넘치는 친구들과 공부하며 열정을 함께 느끼고 배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학교생활을 느낀다는 것은 역시 공부뿐 만이 아니기 때문에 흥미로운 주제의 Conference, Fair 에 참가하거나 풋볼, 농구와 같은 학교 팀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고 Home coming, Halloween 등 학교의 많은 행사에 참여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 하나가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적응하고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학기 중 조금 어려웠던 점이라면 Computer Science 전공으로 학과의 수업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교환학생이라는 이름표 없이 보통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해야 했기에 종종 따라가기가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과제를 받으며 그들과 똑같은 환경의 학교생활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고 흥미로운 시간 이었습니다.

교환학생은 저에게 미국의 대학생살이라는 꿈 꿀 수가 없었던 생활을 딱 한 학기 동안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좁고 작은 것보다 넓고 크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저의 장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와 1년 후 졸업과 동시에 또 다른 것을 시작해야 하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의 진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였고 이것이 앞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환학생 : 허현주



유비쿼터스IT학과 허현주 학생은 3학년 재학 중에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컴퓨터사이언스 학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고 이후 4학년 재학 중에 미국 워싱턴의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인 TWC에 지원하여 최종 선발되어 4개월간 TWC 인턴십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극동대학교 학생으로서 특히, 유비쿼터스IT학과 학생으로서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해도 완벽히 잘하고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후배들이 저 이후에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컴퓨터 학과라서 영어는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시작하기조차 어려워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는 특정한 학과 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 영어란 시험성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하기 싫은 공부였겠지만 여행 중 친구를 사귀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었고 문법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더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틀에 박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모든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점입니다. 저희 학과의 많은 후배들이 컴퓨터라는 틀에 갇혀 한가지만 공부하지 않고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많은 기회를 통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 에세이 : 필리핀 단기연수

필리핀을 다녀오고 나서 (2012년)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저는 유비쿼터스IT학과 4학년 윤종인이라고 합니다. 학우 여러분들 이번 겨울 방학들은 보람차게 다들 보내셨는지요? 저는 이번 겨울 방학 때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필리핀 단기 연수를 갔다오기로 했습니다. 물론 계획을 만들고 다녀 왔습니다. 제가 필리핀 단기 연수를 다녀온 이유는 제가 지난 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 몰입식 교육을 꾸준히 하면서 그 동안 배운 영어 실력을 필리핀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제 전공 수업을 다른 나라 타 대학교 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알고 듣고 싶어서 필리핀행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필리핀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고 배우고 어떤 과정으로 지낼 것인지 계획을 만들고 갑니다.

우선 저는 머무는 동안 무조건 영어로 말하기라는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말도 안 통하고 제가 영어로 해도 못 알아 듣고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몸짓 발짓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가서 private tutor 라고 해서 개인 영어 선생님을 하루나 이틀에 한번 꼴로 3~4시간씩 배웠습니다. tutor도 무작정 파트 별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법적인 것, 말하는 것, 듣는 부분 시간 대 별로 요일 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어느 학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목적은 영어공부에 대한 것이었기에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비해 물가가 낮아서 그리 비싸지 않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청강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강은 제가 필리핀 가기 전 여러 필리핀 교수님들한테 청강에 대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청강을 한 이유는 물론 제가 타 대학 수업을 듣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영어 Listening과 Speaking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물론 듣는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말도 무척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그래도 몸과 발짓을 총동원 해서 했습니다.

필리핀 단기 연수 : 윤종인



윤종인 학생은 영어 몰입식 교육을 받은 후에 개인적으로 필리핀 단기 연수를 계획하고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도착해서 느낌 점은 제 영어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알고 갔지만 정작 실제로 느끼니까 더더욱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방학 동안 한 거 같습니다. 방학 동안 들은 수업 중 한 수업은 같이 토론토 하고 체험학습도 하고 제가 발표 하는 식의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친해지다 보니 낯아 졌습니다 (나중에 수료증도 받았습니다).

필리핀 을 다녀오고 나서 느낀 점은 첫 번째로 영어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래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학 동안 영어만 듣다 보니 듣는 감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학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학생 에세이 : GLDP 소감문

어떻게 해야 외국인을 만날 때 병어리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 (2012년)

지난 2011년 하계 필리핀해외봉사를 갔을 때 부족한 영어 회화 때문에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해야 외국인을 만날 때 병어리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고 시간이 흘러 개학을 했고, 봉사활동을 하고 다녀온 기간 동안 교내 영어캠프-GLDP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에 참여했던 한 친구를 만났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영어회화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 동계 GLDP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수업반을 배정 받기 위해 필기시험과 영어면접을 통해 A, B 두 반으로 나누는 시험을 치렀고, 저녁에는 교수님들과 학생, 튜터(필리핀 교환학생)가 모여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게임을 통하여 빨리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GLDP 일정은 월~금 동안 오전과 오후 수업 각 3시간씩 총 6시간을 하였고, 저녁 7시 이후부터 튜터들과 함께 수업과제와 다음날 수업준비를 하면서 기본적인

영어회화 스킬을 습득했습니다. 토요일은 한주동안 배운 것들을 테스트하고 오후 1시 이후 귀가 후 일요일에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수업은 아래의 4종류를 하였는데 모두 재밋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 조를 나눠 경쟁하는 게임을 통해 재밋게 단어를 암기하는 수업
- 뉴스기사를 보고 그것에 대해 느낀점과 내용을 말하는 회화 수업
- 재미있는 상황설정을 만들고 대본을 만드는 연극 수업
- 시사문제에 관해 토의하는 수업

GLDP 참가: 현동한



AI컴퓨터공학과 현동한 학생은 필리핀 해외봉사 팀장, 제 10회 GLDP 성적우수 부문 Award for the Most Improved Student 수상, 스피치 부문에서 Award for Honorable Mention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수업 이외에 금요일에는 피자 만들기 체험과 공동경비구역 JAS 방문과 같은 야외 활동도 하고 연극 수업동안 준비한 연극과 3분 말하기와 같은 특별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과 학생, 튜터 모두 수업외적으로 많은 친목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회화 실력도 늘고 보다 원활한 대화를 원하게 되어서 자발적으로 영어공부를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GLDP를 들어 갈 땐 같은 학과 친구가 한명도 없고 외국인만 봐도 나도 모르게 뒷걸음 치는 다리를 보면서 내가 과연 적응하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시작했지만, GLDP는 걱정했던 딱딱한 수업이 아닌 재밌고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했다는 느낌보다 그냥 재밌는 방중캠프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학생 에세이 : 졸업생 인터뷰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18년)

안녕하세요? 어느덧 벚꽃이 활짝 핀 봄날이 되었네요. 저는 AI컴퓨터공학과(구 컴퓨터정보표준학부 게임공학과) 07학번 / 일반대학원 정보통신학과 11학번 졸업생 '최재형' 이라고 합니다. 저를 제외하고도 훌륭한 선배님들 및 졸업생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에게 학과를 대표하여 졸업생 인터뷰를 시켜주셔서 매우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적에 저는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잘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과 같이 저도 다른 대학생들처럼 검색도 하고 친구 및 선배와 서로 술도 마시고, 어울려 놀기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랐던 점이라면 학과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참석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학과를 다니면서 참석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좋았던 점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우리 학과의 장점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과 동아리. 제가 제일 먼저 학생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합니다. 동아리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 분들은 가서 술 마시고 놀기만 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적이 놀기만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과 동아리 같은 경우는 AI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지식도 공유하고 배움의 장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졸업생을 대표하여 인터뷰를 작성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시작점은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AI컴퓨터공학과를 입학하면서 저는 C언어의 기초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include는 처음 보는 단어였고, 프로그래밍 첫 시간에 배운 printf("Hello World")는 어떻게 해서 저런 단어가 출력이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을 준분들은 동아리의 선배님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웠지만 선배님들은 저를 응원하고, 타이르며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공부시켜주셨습니다. 물론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이 있었기에 힘들고, 괴로워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생 : 최재형



반도체 등의 최첨단 장비를 공급하는 국내 대표적인 종합장비회사인 (주)탐엔지니어링 신기술개발팀에서 근무하며 머신 비전(Machine Vision) 부문 총괄을 맡고 있는 최재형 졸업생(2013년 AI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졸업) 재학 시절 필리핀 해외 봉사만 3회를 다녀오고 글로벌 리더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봉사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고 머신 비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학교 4년 내내 프로그래밍 과목은 거의 전부 A+를 받았고, 저는 “탑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에 그리고 같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던 동기들은 “넷마블” 등 유명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생활에서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를 너무 두려워 마시고 지금 이 인터뷰를 보신다면 꼭 동아리에 가입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해외봉사 활동. 우리 학과에서는 대학의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해외봉사, 영어몰입교육, TOEIC, GLDP, 해외 교환학생, 해외 인턴십)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 항상 노력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필리핀 해외봉사 활동 6기, 7기, 8기 총 3번을 참석하여 “글로벌 리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해외봉사 활동을 가게 된 계기는 그냥 단순히 교수님의 추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봉사활동을 즐겨하는 부류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외봉사를 통해서 제 삶의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필리핀에 도착하고 저희는 7~9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케이야' 라는 여자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이 스트리트 칠드런(빈민 아이들)은 페타이어 등을 잘라서 팔아 하루 7~8페소(약 240 원)의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 3끼를 먹기 위해서는 9~11페소(약 330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하루 벌어서 3끼의 식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데 이 식사들도 밥을 먹기보다는 우리가 보기에 오뎅과 비슷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 이 필리핀 아이들은 배고픔을 못 이겨 손쉽게 살 수 있는 마약을 사서 먹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듣고 아마 단지 동정심으로 케이야에게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케이야와 함께하고 마지막 날 케이야가 살고 있는 빈민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빈민가에 들어설 무렵 케이야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짤랑거리며 꺼냈습니다. 동전은 총 '3페소' 였었고, 동전을 부여잡더니 제 손을 뿌리치고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케이야는 사탕 노점상에 도착하여 '1페소'를 사용하여 사탕 한 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그 사탕을 올려두었고, 케이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맛있게 먹어주길 원했습니다. 저는 사탕을 맛있게 먹고, 케이야를 집에 데려다준 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케이야는 한 끼의 최소 가격인 3페소가 되지 않아 그날 저녁을 굶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냥 교수님의 추천으로 필리핀에 왔고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냥 동정심으로 잘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작은 행동 하나가 케이야에게는 정말 소중한 일주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전재산 3페소 중에 1페소를 사용하면 자신이 굶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제가 사탕을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케이야의 마음을 보고 제가 해외봉사를 왔지만 오히려 제가 더 큰 것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작은 행동 하나가 타인에게는 커다란 고마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어서 7기, 8기 필리핀 봉사활동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저처럼 삶의 큰 전환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찾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귀찮고 재미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큰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학과 오픈 연구실. 우리 학과 교수님들께서는 연구실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개방하여 학생들이 대학원 석/박사 과정 방식으로 연구와 세미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4학년 1학기에 지도교수 '예철수' 교수님 아래로 들어가 대학원 2학년까지 총 3년을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동아리 선배들의 도움으로 프로그래밍은 잘했지만, 성실하지는 못했습니다. 4학년 때까지 매일같이 밤새 게임을 하고 놀았으며 사진의 염색 또한 4학년 때 한 것입니다. 연구실에서는 매일 출근과 퇴근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매주 비전세미나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밤새 게임을 하며 놀았던 저는 거의 매일 같이 지각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1분을 지각하는 날에도 교수님은 저를 따끔하게 혼내주셨습니다.

비전세미나를 통해 PPT의 글꼴 / 글씨 크기 / 그림 크기 / 영어&한글 혼용 사용 등으로 매주 따끔하게 혼내주셨습니다. 자유분방했던 저는 당연히 처음에는 너무 싫었습니다. 1분 늦은 것 때문에 혼내는 교수님이 밉기도 했고, 열심히 PPT 만들었는데 혼내는 교수님이 또 밉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나면서 교수님이 내주시는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다보니 대학원 때는 지각도 하지 않게 되었고, PPT 또한 곧잘 만들었으며 매주하는 비전세미나를 통해 발표 또한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수님의 지도는 회사를 취직한 후에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매일매일 지각하지 않고 심지어 회식을 한 후 다음날에도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실성을 인정받아 회사에서는 더욱 많은 것을 저에게 맡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PT를 워낙 깔끔하게 제작하여 회사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PPT를 확인 받기도 합니다. 매주 했던 비전세미나를 기초 삼아서 깔끔한 PPT와 함께 회사에서 유일하게 대리 직급으로 사내강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사업부내에서 인정받아 이른 나이지만 비전&로봇 분야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학과 오픈 연구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의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들께서 내주시는 과제가 정말 힘들고, 참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여러분들 또한 인정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지난 학교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뛰어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학과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 뿐 이고 그런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는 솔직하게 학교 이름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의 선배들, 학과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저는 이만큼 성장했고 이제는 자랑스럽게 극동대의 학생이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회사에서도 저로 인해 실제로 극동대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아진 상태입니다. 인생의 한번뿐인 대학교 생활을 공부만으로 보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후배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뛰어나고 대단한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학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한 개라도 참여한다면 저보다도 더욱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회사에 들어가 후배 여러분이 인정받는다면, AI컴퓨터공학과가 인정받는 것이고, 나아가 극동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 소개



학과장

예철수 교수 (Chul-Soo Ye)

전 공 : 컴퓨터비전
연구실 : Image & Vision System Lab.
위 치 : A304
연락처 : 043) 879-3695
이메일 : csye@kdu.ac.kr



현득창 교수 (Deuk-Chang Hyun)

전 공 : 멀티미디어 문서처리(SGML/XML)
연구실 : Web Information System Lab.
위 치 : A206
연락처 : 043) 879-3612
이메일 : hyundc@kdu.ac.kr



김성종 교수 (Seong-Jong Kim)

전 공 : 컴퓨터응용
연구실 : Digital Design Lab.
위 치 : A303
연락처 : 043) 879-3613
이메일 : ksj@kdu.ac.kr



신예호 교수 (Yeh-Ho Shin)

전 공 : 데이터베이스
연구실 : DB & Embedded System Lab.
위 치 : A208
연락처 : 043) 879-3616
이메일 : snowman@kdu.ac.kr



남의석 교수 (Eui-Seok Nahm)

전 공 : 시스템제어
연구실 : AI Control and Modeling Lab.
위 치 : A402
연락처 : 043) 879-3620
이메일 : nahmes@kdu.ac.kr



이덕진 교수 (Deok-Jin Lee)

전 공 : 센서시스템
연구실 : Sensor Information System Lab.
위 치 : A401
연락처 : 043) 879-3647
이메일 : djlee@kdu.ac.kr

Dept. of AI Computer Engineering

FAR EAST UNIVERSITY, KOREA